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10. 13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9/29~10/10)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전주 초, 미 근원 물가 오름세가 다소 누그러진 점이 연준 금리인하 기대 자극한 가운데 분기말 달러 매도 물량 유입되며 환율은 1,390원대로 급락 출발. 이어 미 연방정부 섰다운 우려를 반영한 달러 약세에도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수급상 매수 우위 영향 속 상승 전환
- 중반, 미 정부 섰다운에 따른 약달러에도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 장기화로 인한 원화 약세 분위기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
- 후반, 미 민간고용 감소 소식에 달러 약세 나타난 가운데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하락 전환. 추석 연휴 이후, 프랑스 정국 혼란과 일본 금융완화 기조 강화 예상 등에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 보인 측면 반영하며 1,420원대로 급등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09.0	1,424.0	1,398.7	1,421.0	+12.0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 환율은 미-중 무역갈등 재고조 우려로 위험회피 심리 강화됨에 따라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미국도 대중 추가 관세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관세분쟁이 재차 격화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 이는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며 원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점 고려하면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여기에 고점 인식에 따른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유입될 측면도 상단 제한 요인

예상거래범위

1,420원 ~ 1,43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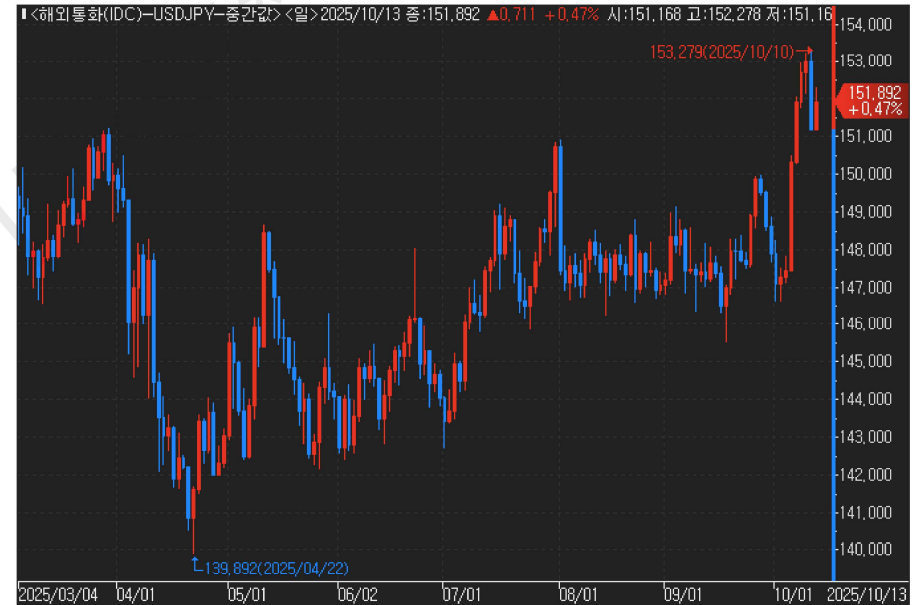
유로·엔화 동향 (9/29~10/10)



유로화 동향

- 9월 후반, 미 정부 섣다운 우려로 달러 약세 나타나면서 유로화는 강세 출발했으나 유로존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로 전환되었다는 소식에 강세 폭 일부 반납. 이후, 독일 서비스업 PMI가 8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한 데 힘입어 재차 반등
- 10월 초 들어, 르코르뇌 프랑스 총리 사임 발표에 재정 리스크 부각된 가운데 프랑스 국채금리 급등한 영향으로 약세 출발. 이어 프랑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이란 우려 지속되면서 추가 약세
- 중반,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독일 산업생산 지표와 예상보다 매파적인 9월 FOMC 의사록으로 인한 달러 강세 등을 반영하며 약세 흐름 지속
- 후반, 프랑스 정국 불안 여파 속 유로화 매도세 이어지면서 추가 약세 시현. 이어 주 후반, 미-중 무역갈등 재고조 속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유로화 반등 후 1.16달러선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743	1.1731	1.1543	1.1618	-0.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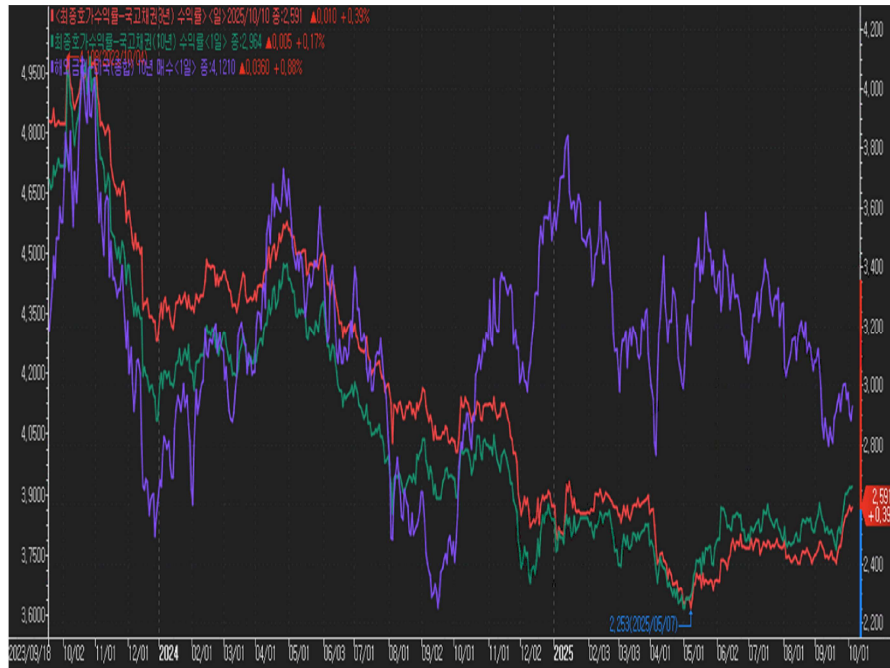
엔화 동향

- 9월 후반, BOJ 정책위원의 매파적 발언에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엔화는 강세 출발. 이후, 일 제조업 경기 개선세에 추가 강세 보였으나 자민당 총재 선거 앞두고 불확실성 부각되자 일부 되돌림 시현
- 10월 초 들어,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 선출로 금융완화 기조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 실리면서 BOJ 금리인상 기대 약화되자 큰 폭 약세로 출발. 이어 일 재무상의 구두개입성 발언에도 엔화 매도세 이어지며 약세 지속
- 중반, 일 총리 취임이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총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란 예상 속에 추가 약세 보이며 153엔을 돌파
- 후반, 엔화 가치 급락세에 일본 수입업체들의 저점 인식 달러 매수세 유입되면서 추가 약세는 제한. 이어 주 후반, 일 재무상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 표명과 미-중 무역전쟁 격화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강세 전환 후 151엔대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7.5	153.3	149.0	151.2	+3.7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9/29~10/10)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9월 후반, 미 국채금리는 9월 PCE 지표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영향을 반영, 하락 추세를 나타냈지만, 국고채 금리는 외국인 수급과 환율 등을 주시하는 가운데 국고채 30년물 입찰 대기 분위기 속 보험권 출발. 이어 월 말, 외국인 투자자의 3,10년 국채선물 순매수 속에서도 예상보다 약했던 국고채 30년물 입찰 소화하는 과정에서 국고채 금리는 상승
- 10월 초 들어, 미국 연방정부가 섣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수급적으로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전환 등으로 상승 흐름 지속. 이어진 2일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지속에도 미국 ADP 고용지표 부진 영향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기관들 베테랑이 이어지며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며 하락 전환
- 이어, 추석 연휴 이후 개장한 국고채 시장은 연휴기간중 상승한 미 국채 금리 흐름에 연동되어진 양상 속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등으로 상승 국면 시현했으나, 장 후반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면서 상승폭 완화된 양상



주간 증시 동향

- 9월 후반, 대외적 미 PCE 물가지표의 시장 예상 부합 속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회복과 대내적 당정간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의사 재확인 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상승 출발. 이어 월 후반, 미 연방정부 섣다운 우려에 약보합 마감
- 10월 들어서도 미 섣다운 우려에도 오히려 경기둔화 가능성에 따른 영향으로 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며 코스피 상승 압력으로 작용. 이어진 2일에도 섣다운이 일시적일 것이란 낙관론 우세 속 의약품 관세 면제 기대감 확대 등도 투자심리를 지지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대형주 상승세 등으로 사상 처음 3,500선 돌파
- 이어, 추석 연휴전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형 반도체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재차 3,600선을 돌파하는 강세 흐름 시현